

# 43주년 5·18행사 중심에 '미래 세대' 있다

### 5·18행사위, 13일 국민대회 등 130여개 사업 진행 예정 청소년 기획·참여 30개...시민공모·사적지 투어·공연 등

올해 제43주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30일 제43주년 5·18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에 따르면 올해 5·18기념행사에서는 추모사업, 계승사업 등 총 130여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청소년사업과 공모사업 등 최소 30여개 사업이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5·18기념행사는 정부 추모사업 4개와 5·18행사위 주관 추모사업 6개, 계승사업 12개, 청소년사업 13개, 나눔사업 2개, 역사배움사업 5개, 동네 5·18사업 18개, 공모사업 27개, 협력사업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캐나다 토론사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해외사업 2개, 대구·부산·세종시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연대협력사업 30여개도 운곽이 나왔다.

이 중에는 청소년 등 미래 세대가 직접 꾸미는 사업 및 행사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청소년 사업으로는 광주지역 교사와 초등학교 5·6학년생, 중·고등학생 등 1000여명이 모여 5·18사적지를 돌아보는 '선생님과 함께 걷는 오월길'을 비롯해 '오월 인권길 걷기', '오월의 봄소풍' 등 청소년 대상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는데, 20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미션주먹밥 만들기, 스케치북 토크, 퍼포먼스 공연 등 콘텐츠로 구성된 '청소년 5·18 뮤지크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시민공모 사업 또한 전체 27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을 주축으로 이뤄진다.

광주전남 대학생 품물동아리 '올림'은 13일 전남대에서 품물공연을 열고, 광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오는 6월 30일까지 5·18사적지를 탐방한 뒤 음악

회까지 여는 '5·18 청소년 민주인권 여행'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 극락초·매곡초와 익산 이리동초·부송초 학생들은 5·18에 대한 비대면 합동 수업을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체험학습을 가는 '익산에서 광주로, 오월을 만나다' 교류학습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 대학생 뮤지컬동아리 '리라'의 '남을 위한 행진' 공연, 경기도 청년예술단체 '예음'의 무용 공연 '오월의 이름', 대전 대학생 노래동아리 '새벽'의 거리공연 '5·18역사바로잡기 대학생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 다 지역 청년들과 연계한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5·18행사위는 오는 13일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17일 시민난장,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 등을 열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추모제(17일)와 정부기념식(18일), 민주기사의 날(20일), 부활제(27일)도 예년처럼 진행될 방침이다. 공법단체는 지난 2월 19일 특전사동지회와 '공동선언식'을 한 이후 5·18행사위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갈등이 깊어졌는데, 결국 갈등을 매듭 짓지 못하고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대학생·노동자대회, 오월여성제, 민족평화포럼 등 5·18 정신 계승사업도 5월 중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 등지에서 잇따라 진행되며, 13일과 17일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행사장 인근에서 대중주먹밥 나눔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전남대, 민족민주열사묘역, 들불열사길 등 5개 주요 사적지를 중심으로 안내 및 해설을 지원하는 역사배움사업도 진행된다.

광주시 동구 5·18사적지 버스타방, 서구 양동시



추모객들이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의 넋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월단체, 5·18 왜곡 전광훈 목사 고발키로

오월 단체들이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5·18 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5·18 공법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전광훈 목사의 왜곡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를 규탄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는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구역 광장에서 5·18에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는 발언을 거듭 반복했다"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 시민의 민심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5·18 당시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주장하

는 등 망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의 망언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는 광주 시민들과 전 국민의 아픔을 다시 한번 찢어 놓고 있다"며 "이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광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광주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전 목사의 5·18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 및 폄훼는 국가 법 체제를 뒤흔드는 중범죄다"며 "광주시는 전 목사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지노위 "보육대체교사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즉시 복직 주문

광주시청에서 109일째 농성중인 보육대체교사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30일 민주노동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는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28명이 전남지노위에 신청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 및 광주시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서를 지난 27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지노위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월 4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광주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에 대한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특히 전남지노위는 판정서에서 광주시사회서비

스원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남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체교사 업무는 위탁사업기간까지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볼 수 있다"며 "보육대체교사들이 육아센터에서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점, 광주시사회서비스원도 사업의 연속·전문성을 고려해 제한 경쟁 방식으로 기존 대체교사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별도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